

# 비빔밥축제서 맛보는 글로벌 음식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초청 '마스터셰프 쿠킹콘서트' 마련  
터키 가지엔테프·중국 청두 등 유명 셰프가 각국 음식 소개

전주시와 같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다양한 해외도시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쿠킹콘서트가 전주비빔밥축제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2018 전주비빔밥축제'에서 전주시를 비롯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5개 국가 6개 도시의 유명 셰프들이 각국의 음식을 소개하며 화려한 전통음식을 선보이는 쿠킹콘서트를 열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참가 도시는 터키 가지엔테프와 미국 샌안토니오, 일본 츠타오카, 중국 청두와 마카오, 태국 푸켓으로, 각 도시를 대표해 참가

하는 셰프들은 유네스코 네트워크의 추천을 통해 엄선된 각 도시의 마스터 셰프들이다. 이들은 전주비빔밥축제가 열리는 4일 동안 매일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에서 쿠킹콘서트를 통해 각 도시의 화려한 전통음식을 선보이고,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식문화를 뽐낼 계획이다. 또, 전주의 음식 또한 배워갈 예정이다. 회차당 시식가능한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이번 '마스터셰프 쿠킹콘서트'는 단순히 음식과 문화의 교류에서 끝나지 않고, 참가한 마스터셰프들과 전주지역 음식 관련 학교·학과와의 학생교류 및 인턴십 등 업

무협약으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음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디딤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국제도시로서의 전주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행사를 추진해 왔다.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올해 비빔밥축제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써 전주의 위상을 높이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쿠킹콘서트는 전주시를 비롯한 전 세계 음식창의도시들의 교류의 장이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우수한 음식문화를 맛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완주군 한벽문화관에서 개최된 '2018년 전라북도 한글 큰잔치' 성인문해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완주군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어르신 9명과 문해교육사 2명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완주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어르신... 공모전 휩쓸어

'전라북도 한글큰잔치' 서 11명 수상

완주군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어르신들이 공모전을 휩쓸었다.

12일 완주군은 최근 한벽문화관에서 개최된 '2018년 전라북도 한글 큰잔치' 성인문해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완주군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어르신 9명과 문해교육사 2명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성인문해 체험수기 공모전은 전라북도가 주

최하고,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한 것으로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부문별 수상자로는 문해학습자 부문에 최우수 수상 김영자씨(70,운주), 우수상에 전소순씨(78,삼례)·이순남씨(84,운주), 장려상에 유한순씨(75,삼례)·김군자씨(83,봉동)·오순례씨(66,봉동)·유영자씨(73,이서)·주선자씨(73,이서)·유금희씨(64,소양)가 각각 수상하고, 문해교육사 부문에 우수상 최숙자, 허미경 선생님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특별축하공영으로 이서 정농경로당 10명의 어르신들이 세종임금 시를 암송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계임 행정복지국장은 "학습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체험수기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성인문해 진달래학교는 읍면 사무소 및 마을경로당 등에서 총 25개소 300여명이 참여하는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흥겨운 가락 만끽할 수 있는 가을밤'

전북대 한국음악학과 정기연주회, 내일 소리문화의전당서 열려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마련한 제31회 정기연주회가 내일과 17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과 연지홀에서 각각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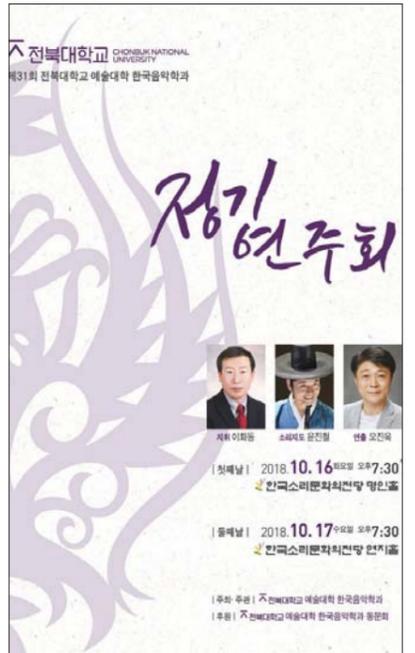
특히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판소리와 기악의 여우리듬을 만날 수 있는 창곡과 협주곡이 무대를 수놓을 예정이어서 그간 준비했던 학생들의 열정까지 만날 수 있다.

이화중 교수가 지휘를, 오진욱 교수가 연출을 각각 맡았고 윤진철 교수가 소리를 지도했다.

첫째 날인 16일에는 판소리 전공 학생들이 준비한 창곡 '춘향전'이 명인홀에서 열린다. 서정민씨(2년)의 도창으로 이몽룡역이 김원기(3년), 춘향역에 장미령(4년)·임정아(2년)씨 등 16명의 판소리 전공 학생들이 참여한다.

17일에는 기악 전공 학생들이 주축을 이룬 '협주곡의 밤'이 마련된다. 이 무대에서는 국악 관현악을 위한 '청정(淸靑)'을 비롯해 대평소 협주곡 '호적풍류', 대금 협주곡 '청성곡', 김일규류 아쟁산조, 거문고 협주곡 '수리재', 방아타령 주제에 의한 해금 협주곡,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 관현악 '신모듬 3악장:놀이' 등이 기악의 다양한 기교와 흥겨움을 더한다.

이화중 학과장은 "정기연주회를 준비하



는 동안 학생들은 파트 연습을 통해 선배 간의 정을 나누고,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더욱 성숙한 연주자의 모습으로 다듬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연주회를 통해 구성되고 흥겨운 가락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임실군, '전국남녀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성료

임실군 노인복지관에서 제17회 전국남녀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임실군이 후원하고 (사)대한시조협회 임실군지회(지회장 윤석호)가 주최한 대회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과 시조 동호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우리 전통문화인 시조는 800여년전부터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취와 애환을 담은 정형시로서, 세월의 흐름과 함께 민족의 얼과 정서를 담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고유의 민족문화이자 소리이다.

어렵고 딱딱한 문화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시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시조·가사·가곡 부문별로 읍부, 갑부, 특부, 명인·명창부 등 모두 4개 부문에 걸쳐 전국 각지의 내로라하는 시조 동호인 100여명이 경연에 참가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펼쳤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대한시조협회 임실군지회 윤석호 지회장은 "전국의 많은 시조동호인이 참여하여 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져 정말 기쁘다"며 "전통의 맛이 살아있는 풍류를 널리 선양시켜 나갈 수 있는 경창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전통의 얼과 문화를 담고 있는 시조를 이해하고 뜻을 이어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시조 동호인들의 화합과 시조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